

성인의 애착양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의 내적 표상을 중심으로*

Adult attachment style and related variables :
Focused on internal working models of housewives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俞桂淑
교수 李恩海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Lecturer: Gyesook Yoo

Professor: Unhai Rhee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제기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es of adult attachment focused on internal working models of 201 housewives. Findings indicated that 68.3% of subjects were classified as secure, whereas 27.5% as avoidant, and 4.2% as anxious. Greater security was associated with slightly less avoidance, while greater anxiousness was associated with slightly greater avoidance. That is, subjects who possessed more security tended to be less avoidant, while subjects who possessed more anxiousness tended to be more avoidant. The primary characteristics classifying subjects into those three attachment styles were feelings about closeness, dependence, and anxiousness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Adult attachment was related in theoretically expected ways to one's history of attachment and parenting. Secure subjects were more likely to report warm/responsive parental caregiving style than insecure styles. Insecure subjects, in comparison with secure subjects, perceived their mothers as cold, inconsistent, and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not very responsive. Anxious subjects described their fathers as cold and rejecting. The secure attachment style, in comparison with insecure styles, was associated with positive mental models of self and social world, indicating greater self-esteem, positive beliefs about self and other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and greater secure attachment to their husban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ternal working model offers a useful perspective on adult attachment.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제기

애착은 가족관계의 중요한 기본적 요소로서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관계는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애착이론의 시조인 Bowlby에 의하면, 초기 애착의 영향은 매우 지속적이며 성인기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나 사회성 같은 개인의 친밀한 관계 및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 애착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인이 아동기에 경험했던 부모-자녀 관계를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와 관련시켜 연구하기 시작했다(Hartup & Rubin, 1986; Hazan & Shaver, 1987; Hinde, 1979; Hinde & Stevenson-Hinde, 1986; Shaver & Hazan, 1988; Weiss, 1982, 1986). 이들의 주요 연구주제는 개인이 아동기에 가졌던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자아 및 타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아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Hazan과 Shaver(1987)는 Ainsworth의 유아기 애착양식을 성인기의 애정관계에 적용시켜 연구함으로써 개인이 유아기에 부모에 대하여 형성한 애착양식은 이후 성인기에 맺는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애착양식으로 지속됨을 시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초기 애착양식의 지속성을 자아 및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 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으로써 설명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초기 애착양식을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와 관련시킨 후속 연구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Simpson, 1990)이 잇달았다. 그런데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대부분 내적 표상 모델이 제시하는 초기 애착과 성인기의 다양한 관계, 예를 들어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성인자녀-노부모 관계 등과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주로 태이팅 파트너가 있는 성인기 초기의 미혼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유아기의 애착과 성인기의 낭만적 사랑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인의 초기 애착양식이 성인기까지 지속됨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인기의 다양한 관계를 어린 시절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애착경험과 관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인기의 주요 애착관계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는 이러한 초기 애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일련의 연구들(유계숙, 1995; 유은희, 1991; 이은하·이정숙, 1997; 전효정, 1996; 조병은·박성연·유은희·이정순·류명희·이숙·김명희·최해경·박용임, 1995)을 통하여 성인기 애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부부관계나 성인자녀와 중·노년 부모 관계 혹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고있어 성인기의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여 애착이론의 핵심이 되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들이 가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 모델을 통하여 성인기 애착양식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며, 이것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내적 표상의 영향을 받는 전업주부의 자아존중감, 남편에 대한 애착과 결혼만족도로 측정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의 질, 그리고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질에서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성인기 애착양식의 구조

애착양식의 개인차를 연구한 Ainsworth, Blehar, Waters, 그리고 Wall(1978)에 의하면, 초기 애착관계의 질은 유아와 주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아의 주양육자에 대한 애착양식에는 안정형(secure)과 불안정형(insecure)이 있고, 불안정형은 회피형(avoidant)과 불안형(anxious)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Ainsworth와 동료들은 유아와 주양육자간의 접촉, 분리, 재결합의 일화로 구성된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을 통하여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의 세 가지 애착양식을 발견하였다. 이 실험에 따르면, 보통의 유아들은 부모가 자신의 곁을 떠날 때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이고, 부모가 다시 돌아오면 반겨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부모가 유아를 쉽게 안정시킬 수 있는 애착관계를 안정형 애착이라 한다. 반면, 부모가 나가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돌아와도 부모를 무시한 채 짐짓 놀고만 있는 애착관계를 도피적이며 불안정한 회피형 애착이라 한다. 한편, 부모가 떠나면 매우 흥분하고, 다시 돌아오면 부모에게 매달리거나 부모 곁을 떠나는 양가적인 행동을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반항적이며 불안정한 불안형 애착이라 한다.

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nberg(1983)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유아들 중 62%가 안정형에 속하며, 23%가 회피형에 속하고, 15% 정도가 불안형에 속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율은 성인의 애착양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가 있는가 하면, 성인기에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대상과의 애착에서는 안정형의 비율이 유아기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Kobak & Hazan, 1991; Simpson, 1990)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더구나 아동발달 분야에서 유아기 애착양식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

라 유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애착양식 구성 비율을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는 일은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참고로 우리 나라 영아를 대상으로 한 낯선 상황 실험에서는 안정형 영아가 77.8%, 불안정형 영아가 22.2%로 나타났으며(조병은 외, 1995), 유치원 아동의 애착양식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안정형은 57.5%, 불안정형은 42.5%로(이주리, 1996) 서구의 아동보다 안정형의 비율이 다소 적고 불안정형의 비율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애착양식 구성비율이 보고된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안정형이 74.1%, 회피형이 9.5%, 불안형이 19%를 차지하여 서구보다 안정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도 있고(이은하·이정숙, 1997),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효정(1996)의 연구에서는 안정형이 49.5%, 회피형이 23.0%, 불안형이 27.5%를 차지하여 서구보다 오히려 안정형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도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성인기 애착양식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의 세 가지 애착양식이 어떠한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에 의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호의존성, 신뢰감, 친밀감, 만족감, 헌신적 태도 등은 안정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회피형은 안정형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불안형은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의존성이 적절한 수준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성인기의 애착관계에서 안정성이 높으면 불안성은 다소 낮고 회피성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불안성과 회피성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성인기의 애착

Bowlby(1982)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유아의 애착 행동은 목표수정 행동체계(goal-corrected behavioral system)의 조절을 통하여 양육자인 성인과 근접성(proximity)을 유지함으로써 안전과 생존을 도모한다고 한다. 즉, 유아가 울고, 웃고, 웅사하고, 소리를 내는 등의 신호와 행동을 이용하여 자신을 돌보는

성인과 늘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안정감은 애착대상인 성인이 필요하면 언제나 자신의 요구에 반응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주양육자인 부모가 유아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유아의 애착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며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면 자녀는 안정적인 애착양식을 형성할 수 있으나, 자녀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양육방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혹은 배일관적인 양육행동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일 때 자녀는 회피형이나 불안형과 같은 불안정적 애착양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애착양식과 관련된 부모의 또 하나의 특질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스타일이다. 자녀와 확고한 애착을 지니는 부모는 부드러운 말씨, 정당한 권한행사적 지시, 그리고 적극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김성태, 1985). 결국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은 부드럽고 수용적인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런 부모는 자기의 전남, 가치, 기대를 자녀에게 잘 전달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며, 자녀의 주장과 가치를 지지하고 인정해준다. 부모의 수용성과 온정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애착대상인 부모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해착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양식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정교화되고, 약간의 수정은 이루어지지만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특히 애착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애착대상에 대한 신뢰감은 가장 변화되기 어려우며, 여러 연구들(George, Kaplan, & Main, 1984; Shaver & Hazan, 1988; Simpson, 1990)을 통하여 초기 애착양식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성인기의 애착양식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애착양식과 아동기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최근의 결과들 역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 하고있다. 안정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는 회피형이나 불안형에 비하여 양쪽 부모 모두 자신을 온정적 양육방식으로 대했다고 회상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어머니가 냉담하고 거부적이었다고 회상한 사람들은 회피형 애착양식을, 아버지가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불안형 애착양식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Hazan & Shaver, 1987). 또한 부모가 온정적으로 대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시각이 보다 긍정적이어서 자신감이 높고, 타인과의 상호 의존을 편하게 생각하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한 반면, 부모가 냉담하거나 배일관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 사랑 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할까봐 걱정하는 경향을 보였다(Collins & Read, 1990).

3. 성인기 애착과 내적 표상 모델 및 관련 변인

Bowlby(1973, 1982)는 애착관계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적 표상 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내적 표상 모델이란, 애착과 관련된 기억, 지식, 경험, 감정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조직하며, 통제하는 일련의 규칙체계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이러한 규칙체계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그녀가 맺고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각을 형성해간다. 애착이론은 전통적으로 초기 애착과 유아기 및 아동기의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나, 사실상 Bowlby(1982)는 초기 관계의 본질이 성인기에 맺는 관계의 모델이 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형성케 하고 나아가 개인의 일생동안 사회적 능력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초기의 애착관계는 아동의 인성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본질은 대개 주양육자가 아동기의 육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으며(Bowlby, 1973), 아동은 주양육자와의 계속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을 잘 돌보아주고 민감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보호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축적함으로써 내적 표상 모델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모델은 주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에서도 일반화되어 작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 지각, 행동 등을 통제한다(Bowlby, 1973). 요컨대 아동과 주양육자간의 초기 애착관계는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과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애착의 내적 표상 모델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Kobak & Sceery, 1988)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신뢰감과 자신감이 높았으며, 애정관계에서 보다 표현적이고 성공적인 반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보다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불신감을 가지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형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신감도 낮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있는 내적 표상 모델은 아동기의 애착양식을 성인기까지 지속시키는 기제가 되며, 성인기에 갖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이나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애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애착이 세대를 통하여 전이된다는 것이다. 즉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애착양식이 세대를 거쳐 전이된다(조병은·박성연·유은희·이정순·류명희·이숙·김명희·최혜경·박응임, 1995; Grossmann & Grossmann, 1990). 애착의 세대간 전이는 특히 Main, George, 그리고 Kaplan (1985)이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개발하여 부모-자녀간 애착양식의 일치를 고찰하게 됨으로써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성인애착면접'은 담화내용에 나타난 각기 다른 언어상의 특징에 따라 성인의 내적 표상 유형을 자율형, 무시형, 몰입형, 그리고 미해결/비조직형으로 구분하였는데, Main과 Goldwyn(1984)은 안정애착형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율형으로 분류되고, 불안형 자녀를 둔 어머니는 몰입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75%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Van IJzendoorn(1995)은 854쌍의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애착양식 일치율이 70%에 달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생애초기에 형성한 애착양식을 통해 개인

이 소유하게 되는 내적 표상 모델이 일생동안 지속될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이된다는 Bowlby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30쌍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인애착면접'을 이용하여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의 47%가 자율형(안정형), 33%가 몰입형(불안형), 10%가 무시형(회피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자녀와 어머니의 애착양식은 67%의 일치율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자녀의 애착양식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였다(최해훈·이경숙·김대련, 1998). 따라서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가정한다면,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즉 안정적인 애착양식을 나타내는 전업주부가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할 것이다.

부부관계는 개인이 성인기에 맺는 가장 중요한 애착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부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안정감이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긴밀한 애착관계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유아기나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애착행동의 주체인 자녀가 지속적인 근접 행동을 통하여 애착 대상인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추구하는 반면, 부부관계는 양측이 모두 애착행동의 주체인 동시에 애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물리적 근접성을 유지하지 않아도 내적 표상 모델을 통하여 상징적 혹은 심리적 근접성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부부간의 애착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부부관계가 성적 친밀감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적 측면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배타적 관계로서의 부부관계이다(Hazan & Shaver, 1987; West & Sheldon-Keller, 1994; Weiss, 1982). 요컨대 부부간의 애착은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질적으로 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부부간의 애착관계는 내적 표상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내적 표상과 관련하여 남편에 대한 애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의 애정관계를 이해하는 틀

로서 애착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초기 애착관계가 성인의 애정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Ainsworth와 그 동료들(1978)이 제시한 세 가지 애착양식을 성인기의 애정관계에 적용시켜 연구한 결과, 애착양식에 따라서 사랑의 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는 친밀하고 지지적인 애정을 경험하며, 회피형의 소유자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불안형의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집착하며, 정서불안을 나타내고, 육체적으로 매혹되거나, 상대와 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애정 경험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애착경험은 성인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이성간의 애정관계 및 직장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강진경·최혜경, 1996; 유은화·박성연, 1989). 결론적으로 애착의 내적 표상 표현은 초기의 애착양식과 성인기의 자아존중감이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반적인 대인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질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성인의 애착양식은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 전업주부의 애착양식별 구성비율은 어떠한가?
 (2)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구성하는 애착성향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구분하는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2. 성인의 애착성향은 그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3. 성인의 내적 표상과 관련된 제변인은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전업주부의 자아존중감은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전업주부의 남편에 대한 애착은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전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전업주부의 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5) 전업주부의 대인관계의 질은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류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1학년 여 자녀를 둔 전업주부로서 초혼을 유지하고 있는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별거중이거나 재혼한 사람은 애착에 관한 응답의 편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로 제한한 이유는 자아존중감이나 결혼만족도 등 애착양식과 관련된 변인에 취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며, 우리 나라 여성들의 경우 결혼퇴직률이 매우 높고 기혼여성이 재취업하는 시기는 대체로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해당하므로(한국여성개발원, 1996)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에서는 취업주부에 비하여 전업주부를 비교적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지닌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형 단일 문항에 기초하여 성인의 애착양식을 세분화한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성인애착척도는 성인이 애착관계에서 나타내는 세 가지 애착성향, 즉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각 6문항)의 정도를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애착성향(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각각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 점이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0, .60, .57$ 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의 세 애착성향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응답자의 애착양식으로 결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201)

변인	평균(표준편차)	범위	빈도(%)
연령(세)	35.10(3.19)	27-46	
교육수준(명)			
중졸			15(7.46)
고졸			107(53.23)
전문대졸			16(7.96)
대졸			61(30.35)
대학원 이상			2(1.00)
결혼지속기간(년)	10.18(2.96)	6.5-23.5	
자녀수(명)	2.08(0.49)	1-4	
첫째자녀의 연령(세)	8.87(3.02)	6-22	
남편의 직업(명)			
노무직			6(2.99)
서비스직			12(5.97)
자영업			76(37.81)
관리사무직			49(24.38)
전문직			44(21.89)
기타			12(5.97)
무직			2(1.00)
월평균소득(만원)	270.34(170.56)	100-1,500	

아동기에 경험했던 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azan과 Shaver(1986)의 부모 양육방식 질문지에 기초하여 응답자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과 반응성, 냉담성 및 거부, 비밀 관성을 각각 5점 척도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5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남편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된 성인모녀 애착 척도(유계숙, 1995)를 부부관계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편에 대한 애착경험과 관련된 23

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부인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남편에 대한 애착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23-1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chumm, Nicols, Schectman, Grigsby(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 배우자로서의 남편,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3문항에 대해서 7점 척도를 이용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3-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친밀감과 개방성, 자녀의 욕구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묻는 10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가능

한 점수 범위는 10-50점이며, 높은 점수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Hazan과 Shaver (1987)의 내적 표상 문항(Mental Model Item)을 이용하였다. 응답자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신뢰와 안정성의 정도를 묻는 8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대인관계의 질이 갖는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고, 높은 점수는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51$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편파성을 고려하여 서울의 강남과 강북소재 초등학교 각 2개교의 1학년 총 10개 학급을 선정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83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자가 취업도(80부)이거나 재혼자인 경우(2부)와 부실 기재된 것(17부)을 제외한 201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애착양식의 빈도와 백분율 산출하고,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안정성, 회피성, 불안성)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성인애착척도 문항들을 단계별 중판별 분석(stepwise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각각의 애착성향 점수와 부모의 양육방식점수(온정성, 냉담성, 비일관성)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을 위해서는 애착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내적 표상 관련변인들(자아존중감, 남편에 대한 애착, 결혼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의 질, 대인관계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후, 추후분석으로 분체로나 절차(Bonferroni procedure)를 적용한 일원적 단변량 분산분석(Univariate F-tests) 및 체감 F-절중(Stepdown F-test)과 함께 Scheffe의 사후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성인 애착양식의 구조적 특징

전업주부 201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척도의 하위 점수인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의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응답자의 애착양식으로 결정한 결과, 167명의 애착양식을 분류할 수 있었고, 나머지 34명은 가장 높은 점수가 둘 이상의 애착성향 점수에서 나타나 애착양식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응답자의 애착양식을 보다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애착성향 점수 최대값을 이용하여 애착양식을 분류하는 방법 이외에 애착성향 점수들을 단계별 중판별 분석(stepwise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하여 두 가지 분류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더니 99.39%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또한 애착성향 점수 최대값으로 분류한 애착양식에 따라 애착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 각각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고 사후 검증한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안정형 애착 소유자는 안정성이, 회피형은 회피성이 불안형은 불안성이 다른 애착성향 점수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성향 점수 최대값에 의하여 분류된 애착양식을 전업주부의 최종 애착양식으로 결정하고 추후분석에 적용하였다. 애착양식이 분류된 전업주부 167명의 애착양식별 구성비율과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은 안정형이 68.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피형은 27.5%, 그리고 불안형은 4.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애착성향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각 점수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안정성과 회피성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나($p < .001$), 안정성과 불안성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피성과 불안성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

<표 2> 전업주부의 애착양식별 구성비율과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점수의 평균

애착양식 분류방법	애착양식	빈도 (%)	안정성 평균 (표준편차)	회피성 평균 (표준편차)	불안성 평균 (표준편차)
애착성향점수 최대값에 의한 분류방법	안정형	114(68.3)	21.40(2.51) _a	14.89(2.65) _b	13.43(2.68) _b
	회피형	46(27.5)	15.96(2.97) _b	20.15(2.72) _a	14.15(3.43) _b
	불안형	7(4.2)	16.00(4.80) _b	16.86(5.46) _a	20.43(3.26) _a
	계	167(100.0)			
	F값		62.34***	46.40***	20.47***
판별분석에 의한 분류방법	안정형	113(68.5)	21.42(2.52)	14.88(2.67)	13.41(2.68)
	회피형	46(27.9)	15.96(2.97)	20.15(2.72)	14.15(3.43)
	불안형	6(3.6)	15.67(5.16)	16.50(5.89)	20.50(3.56)
	계	165(100.0)			

*** p < .001

주) 각 열의 서로 다른 문자는 Scheffe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애착성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관계에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회피하는 경향이 낮은 반면, 회피성이나 불안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각각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회피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성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회피성과 불안성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전업주부의 애착성향간의 상관관계

(N=201)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안정성			
회피성		-.37***	-.11
불안성			.34***

*** p < .001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구분하는 주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애착척도 문항들을 단계별 중판별 분석(stepwise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애착양식을 판별하는 변인으로 사용된 성인애착척도의 18개 문항 중 6개의 문항이 단계별 입력과정에 포함되었으며, 결과적

으로 2개의 정준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판별하는 특징으로서 가장 먼저 선정된 문항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회피성) 이었고, 다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곁에 있어줄 것을 확신함(안정성),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함(회피성), 타인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받아들임(안정성), 남편이 떠날까봐 불안해함(불안성), 타인과 쉽게 친해짐(안정성)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의 세 가지 애착양식을 구분하는 두 판별함수를 살펴보면, 함수1은 애착양식간 차이의 91.9%를 설명해주며, 주로 안정성 문항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회피성 문항과 부적 상관이 있어 안정형 집단을 회피형 집단과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양식이 회피형인 사람과 달리 안정형의 소유자는 타인이 자신에게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남과 쉽게 친해지며,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있어 주리라고 믿는 경향을 보인다. 함수2는 애착양식간 차이의 8.1%를 설명해주며, 불안성 문항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회피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어 불안형 집단을 회피형 집단과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양식이 불안형

〈표 4〉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에 관한 단계별 중판별 분석 결과

(N=167)

단계	예언변인 ^{주)} (문항)	Univariate F(2, 164)	Wilks' Lambda	추가시 F값	집단내 구조계수	
					함수1	함수2
1	AV5	38.25	.68	38.25****	-.53*	.02
2	S2	30.04	.50	33.86****	.47*	-.01
3	AV1	21.21	.44	27.42****	-.37	.48*
4	S6	31.85	.39	24.33****	.48*	.23
5	AX4	8.42	.35	21.80****	-.04	-.83*
6	S4	34.33	.33	19.55****	.50*	.14
Canonical R					.79	.36
Eigenvalue					1.64	.14

**** p < .0001

* 각 예언변인과 판별함수간의 상관계수(r)의 절대값 중 가장 큰 것(largest absolute correlation)을 의미함.

주) 예언변인이 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AV5: 누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신경에 거슬린다(회피성).
- S2: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내곁에 있어 주려하는 것을 알고있다(안정성).
- AV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힌다(회피성).
- S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안정성).
- AX4: 남편이 혹시 나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하고 걱정할 때가 가끔 있다(불안성).
- S4: 나는 비교적 남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다(안정성).

인 전업주부는 남편이 자신을 떠날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울 느끼며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반면, 회피형인 주부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애착양식의 주요 특징에 의하여 전업주부 167명의 애착양식을 판별함수를 사용하여 다시 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판별 분석을 통해 제시된 애착양식의 주요 특징들은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중률은 83.83%였다. 각 애착양식 집단의 사례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대기회확률기준(C_{max})을 적용하여 적중률을 t검정한 결과, 애착양식의 주요 특징들에 의하여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확률 83.83%는 가장 사례수가 많은 안정형(114명)에 적중시킬 확률 68.26%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66)=4.31, p < .0001$).

2. 성인의 애착성향과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과의 관계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애착성향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전업주부의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각 점수와 그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성, 냉담성, 비일관성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안정성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방식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01, p < .05$). 이와 대조적으로 회피성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p < .001$), 냉담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방식과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1, p < .05$). 한편 전업주부의 회피성은 어머니의 경우와 달리 아버지의 양육방식

〈표 5〉 중판별 분석에 의한 전업주부의 애착양식 분류 결과

(N=167)

실제 집단	사례수	판별된 사례수(%)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	114	100(87.7)	3(2.6)	11(9.6)
회피형	46	5(10.9)	34(73.9)	7(15.2)
불안형	7	1(14.3)	0(0)	6(85.7)
계	167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 83.83%

〈표 6〉 전업주부의 애착성향과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간의 상관

(N=201)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어머니의 온정성	.33***	-.30***	-.28***
어머니의 냉담성	-.15	.25**	.32***
어머니의 비일관성	-.09	.19*	.20*
아버지의 온정성	.21*	-.08	-.18*
아버지의 냉담성	.02	.01	.19*
아버지의 비일관성	-.07	.07	.11

* $p < .05$ ** $p < .01$ *** $p < .001$

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불안성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양육방식은 어머니의 냉담성이나 비일관성, 그리고 아버지의 냉담성이었으며(각각 $p < .001$, $p < .05$, $p < .05$),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방식은 전업주부의 불안성과 부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01$, $p < .05$). 즉, 아동기에 부모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방식으로 대했던 사람은 성인기에 안정성이 높은 애착관계를 갖게 되는 반면, 냉담하고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방식하에서 성장한 사람은 성인기에 회피성이나 불안성이 높은 애착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애착성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인 애착양식에 따른 내적 표상 관련변인의 차이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에 따른 내적 표상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애착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내적 표상 관련변인들, 즉 자아존중감, 남편에 대한 애착, 결혼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의 질, 대인관계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후분석으로 분쇄로니 절차(Bonferroni procedure)를 적용(유의도 수준 .05/종속변인 수)하여 일련의 단변량 분산분석(Univariate F-tests)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 따르면, 내적 표상 관련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Wilks' lambda=.72, $F(10, 288)=5.12$, $p < .001$), 자아존중감($F(2, 148)=16.08$, $p < .001$), 남편에 대한 애착($F(2, 148)=8.31$, $p < .001$), 결혼만족도($F(2, 148)=8.66$,

〈표 7〉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에 따른 내적 표상 관련변인의 차이

(N=167)

종속변인	애착양식			Univariate F(2, 148)	Stepdown F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자아존중감	36.97 _a	32.18 _b	30.67 _b	16.08***	16.08***
대인관계의 질	27.55 _a	24.56 _b	25.00 _{ab}	14.14***	4.94**
자녀와의 관계의 질	40.72 _a	37.85 _{ab}	34.33 _b	9.20***	1.85
결혼만족도	16.52 _a	14.59 _{ab}	12.17 _b	8.66***	2.10
남편에 대한 애착	85.43 _a	77.13 _{ab}	73.00 _b	8.31***	.88

** p < .01 *** p < .001

주) 각 행의 서로 다른 문자는 Scheffe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종속변인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p < .001), 자녀와의 관계의 질(F(2, 148)=9.20, p < .001), 대인관계의 질(F(2, 148)=14.14, p < .001) 각각에서도 애착양식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형의 전업주부가 회피형이나 불안형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질, 자녀와의 관계의 질,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애착을 보고함으로써 안정형의 애착소유자가 보다 긍정적인 내적 표상 모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적 표상 관련변인들간에 .28에서 .73까지의 유의한 상관관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변인에서 애착양식의 차이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추후분석으로 Univariate F값이 큰 순으로 종속변인을 선정하여 체감 F-검증(Stepdown F-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내적 표상 관련변인은 자아존중감(F(2, 148)=16.08, p < .001)과 대인관계의 질(F(2, 147)=4.94, p < .01)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을 통하여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의 세 가지 애착양식별로 전업주부의 자아존중감이나 타인과의 관계의 질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애착양식이 안정형인 전업주부의 자아존중감(36.97)은 회피형(32.18)과 불안형(30.67)인 사람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았으며, 대인관계의 질도 역시 안정형(27.55)인 전업주부가 가장 높고 회피형(24.56)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불안형이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내적 표상 모델을 통하여 성인기 애착양식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애착양식을 구성하는 성향이 초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 내적 표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201명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은 안정형이 68.3%, 회피형이 27.5%, 불안형이 4.2%를 차지하여 세 유형 중 안정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Kobak과 Hazan(1991)의 연구 결과(안정형 72.5%, 회피형 20%, 불안형이 7.5%)와 매우 흡사하나, 우리나라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효정(1996)의 연구결과(안정형 49.5%, 회피형 23.0%, 불안형 27.5%)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연구대상의 특성이 다르고 서로 다른 애착양식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전효정의 연구에서는 Adult Attachment Scale(Hazan & Shaver, 1992)을 이용하여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23-59세의 중류층 부부를 대상

으로 성인기의 애착 유형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보다 연령이나 결혼지속기간, 가족생활주기 등 성인기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편차가 매우 크다. 특히 전효정의 연구에서 보고된 애착 유형의 비율은 남녀 및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구분하지 않은 평균값이므로 성별이나 취업여부를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한다면 세 가지 애착 유형의 비율은 보고된 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인기 애착에 관한 추후연구에서는 대상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통제되어야 하며,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연구 결과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애착양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애착양식을 조사한 이은하·이정숙(1997)의 연구결과(안정형 74.1%, 회피형 9.5%, 불안형 19%)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성인기의 애착양식은 안정형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혼자인 전업주부가 미혼자인 남녀대학생보다 결혼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불안형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회피형의 비율이 대학생보다 전업주부에서 많은 이유는 타인과의 애착관계 중 상당한 부분이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배우자 이외의 타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94% 가량이, 그리고 신혼기 주부의 83% 정도가 자신의 애착양식을 안정형으로 지각한다고 한다(Howes, Markman, & Lindahl, 1990; Senchak & Leonard, 1989). 이는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와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개인의 애착양식도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이 지니는 주요 특징과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안정형의 소유자는 남이 자신에게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쉽게 친해지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리라는 신뢰감을 갖는 등 타인에 대

한 회피적 경향이 낮은 반면, 불안형의 소유자는 남편이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불안을 느끼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회피형의 소유자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리며 거리를 두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 애착양식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 뿐 아니라 Ainsworth와 동료들(1978)이 제시한 유아기 애착양식 특성파도 유사하여 초기 애착양식이 성인기까지 지속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애착관계에서 안정성이 높은 주부들은 대체로 아동기에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을 경험한 반면, 회피성이나 불안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모가 냉담하고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으로 대했던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업주부의 이러한 애착성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도가 아버지보다 훨씬 높은 우리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업주부가 응답한 아동기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적으로 과거의 회상에 의존한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일관된 이러한 결과는 애착양식의 세대간 전수와 관련된 후속연구, 그리고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안정형의 전업주부가 회피형이나 불안형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질, 자녀와의 관계의 질,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애착을 보고함으로써 안정형 애착양식 소유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내적 표상 모델을 갖고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Kobak & Hazan, 1991)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인기의 다양한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내적 표상 모델의 유용성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에는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애착이론의 주요 개념

이 '안정감에 기반을 둔 탐색적 활동(secure based exploration)'임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전업주부 이외에 취업주부를 포함시켜 두 집단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전업주부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 범위가 비교적 크며, 가족생활주기상 동질적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 및 가족생활주기를 통제하거나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내적 표상 모델의 안정성을 전생애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인의 애착양식이나 대인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지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요한다. 성인 애착 측정도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함께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문지 이외에 면접이나 투사, 관찰 등을 병행함으로써 성인기 애착양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구의 표준화 및 애착양식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불안형 애착양식의 비율이 극히 낮았던 것은 측정도구의 신뢰도 문제 이외에도 애착양식의 분류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성향 점수 최댓값에 의하여 애착양식을 분류하고 판별분석 및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두 가지 이상의 애착성향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들은 애착양식을 분류할 수 없었고, 동일한 애착양식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도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 차가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은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를 것이지만 그러한 개인차를 간과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문제는 성인의 애착을 범주적 개념(애착양식)으로 분석할 것인지 혹은 연속적 개념(애착성향)으로 분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개념상의 논쟁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추후연구에서는 방법론적 개선 이외에 성인 애착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내적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시켰다. 초기의 주양육자와의 경험이

개인의 내적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은 틀림없으나, 성인기의 애착대상이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부부, 부모-자녀 등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양측 모두를 포함하여 내적 표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주부의 애착양식은 안정형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회피형, 불안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애착양식의 특성은 유아기 애착양식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여 안정형인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고, 남과 쉽게 친해지며, 의존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반면, 불안형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회피형인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아동기에 부모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방식으로 대했던 전업주부는 안정성이 높은 애착관계를 가지는 반면, 냉담하고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방식하에서 성장한 전업주부는 회피성이나 불안성이 높은 애착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전업주부의 애착성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업주부의 내적 표상과 관련된 변인들은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안정형의 전업주부가 회피형이나 불안형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질, 자녀와의 관계의 질, 결혼만족도, 남편에 대한 애착을 보고함으로써 안정형의 애착 소유자가 보다 긍정적인 내적 표상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 강진경·최혜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지* 34(4), 161-174.
- 김성태(1985). *발달심리학*. 서울: 범문사.
- 유은희·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유계숙(1995). 성인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78-85.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울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하·이정숙(1997). 사회극을 통한 애착유형 및 대인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11-126.
- 이주리(1996).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역량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77-186.
- 전효정(1996). 갈등해소방법과 결혼적응도: 애착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57-82.
- 조병은·박성연·유은희·이정순·류명희·이숙·김명희·최혜경·박용임(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최해훈·이경숙·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1(1), 131-142.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의 재취업구조와 특성.
- Ainsworth, M.D., Blehar, M.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Y:Basic Books.
- Campos, J.J., Barrett, K.C., Lamb, M.E., Goldsmith, H.H., & Stenberg, C.(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M. Haith & J.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2. Infancy and Psychobiology*(pp. 783-915). NY: Wiley.
- Collins, N.L., & Read, S.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Feeney, J.A.,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George, C., Kaplan, N., & Main, M.(1984).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niv. of California, Berkeley.
- Grossmann, K.E. & Grossmann, K.(1990). The wider concept of attachment in cross-cultural research. *Human Development* 33, 31-47.
- Hartup, W., & Rubin, Z.(Eds.)(1986).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nde, R.A.(1979). *Towards understanding relationships*. Orlando, FL: Academic Press.
- Hinde, R., & Stevenson-Hinde, J.(1986). Relating childhood relationships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27-49). Hillsdale, NJ: Erlbaum.
- Howes, P., Markman, H., & Lindahl, C.(1990). Contributions of attachment theory to the study of marriag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l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ew York.
- Kobak, R.R., & Hazan, C.(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Kobak, R.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s, and percep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Main, M., George, C., & Kaplan, N.(1985). The

-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in, M. & Goldwyn, R.(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 Implications for the abused-abusing intergenerational cycle. *Child Abuse & Neglect* 8, 203-217.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1, Serial No. 209), 66-10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nchak, M. & Leonard, K.E.(1989). Attachment style, premarital relationship stages, and marital functioning among newlywed couples. Buffalo, NY: Research Institute on Alcoholism.
- Shaver, P. R., & Hazan, C.(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 Simpson, J. A.(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othe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Van IJzendoorn, M.H.(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Weiss, R. S.(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 171-184). NY: Basic Books.
- Weiss, R. S.(1986). Continuities and transformations in social relationship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pp. 95-110). Hillsdale, NJ: Erlbaum.
- West, M.L. & Sheldon-Keller, A.E.(1994). *Patterns of Relating: An Adult Attachment Perspective*. NY: Guilford Press.
- Yoo, G.(1995). *Mother-adult daughter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